



반딧불이, 농촌환경 보전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2)

김종길 농업연구사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무주군은 반딧불이와 관련하여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반딧불이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반딧불 축제”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반딧불 축제 기간 중에는 현장에서 직접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는 반딧불이 생태 탐사 프로그램이 있어 환상적인 반딧불이 불꽃 향연을 체험할 수 있다.

양평군의 “맑은 물 사랑” 이란 슬로진 아래 농약,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환경지표곤충인 반딧불이와 메뚜기 등이 서식하는 친환경농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적 반딧불이 서식지가 증가하고 서식지 내 반딧불이 발생 밀도가 높아졌다. 이 운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제주도의 비자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지역으로 3,000여 그루의 비자나무와 함께 반딧불이 서식지로 훌륭하게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비자나무 숲 속에서 보는 반딧불이의 군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케 할 정도로 감탄사가 절로 난다. 이 지역의 경우 반딧불이에 관심 있는 북제주군과 민간단체(예래환경연구회)에서 관심을 갖고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반딧불이 서식밀도는 그다지 높진 않지만 경기도 수원시의 반딧불이 서식지는 농촌이 아닌 도시 근교에서 서식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가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울주군과 밀양 지역의 반딧불이 서식지도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영양군,

봉화군, 금산 등 많은 지역에서 반딧불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 외에도 반딧불이 서식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다수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교육장, 관광자원화 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 반딧불이가 주는 삶의 질

1) 쾌적한 자연환경을 들 수 있다.

반딧불이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여유와 삶의 질을 의미한다.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의 화목한 나들이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는 곧 정서함양과 정신 건강으로 그리고 건전한 사회 발전으로 이어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지역민의 자연 환경 보전 홍보를 위한 가시적 척도로 활용될 것이다.

환경보전의 가시적 척도가 되는 반딧불이를 이용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의 공감대를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또 반딧불이 보전 운동은 마을 단위에서 전 주민의 인식과 협조체계 하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지역으로 확산되어 자연환경 보존과 친환경 개발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공동체 의식 제고와 사회운동을 들 수 있다.

반딧불이는 평온하고 따뜻한 어머니·할머니의 정을 느끼게 하는 고향을 연상케 하며, 아울러 나눠

먹고 서로 돕는 고향의 훈훈한 정과 인심, 풀 냄새 향긋한 마을 뒷동산과 송사리 노니는 냇가 등 인간의 순수한 본연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따라서 반딧불이 보전 운동을 통하여 지역민 화합, 생태?문화예술, 청정 주거 환경, 청정 농산물 등의 지역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다.

4) 자연환경 교육장을 들 수 있다.

반딧불이와 그 서식 자연환경을 연계시켜 다양한 효과를 가지는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생태교육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에는 반딧불이와 연계성을 띠고 있는 자연 생태공간을 갖춘 생태공원, 자연 체험학습장, 캠프촌 및 휴식공간 등과 그 외 타 곤충(나비 등) 생태관, 야생화, 주말농장 뿐만 아니라 수련원 등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생태교육장은 체험학습의 교육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관광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연생태관광=교육관광=지속가능한 관광의 등식 성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등식 성립의 필수요소로서 첫째, 초?중등학교의 교과과정에 활용, 둘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셋째, 환경 개선 운동으로 확대를 들 수 있다.

5) 노령인구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반딧불이 및 서식 환경 보전 운동의 주도로 노령인구의 부가적인 활용은 생태관광 자원의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 활용함으로써 반딧불이 지역의 정서를 더욱 고취시킬 수 있다. 이는 노년층 인력 활용과 복지의 양면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친환경 농업 활성화와 청정 농산물 생산을 들 수 있다.

반딧불이 보전 운동은 무분별한 농약 사용 농법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농법은 일부 제한된 경작지에서 또는 일부 지역에서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도에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반딧불이 보전 운동을 확산함으로써 그 지역의

농산물은 전체가 청정하다는 이미지와 신뢰도 구축의 척도로서 이미 우리 정서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반딧불이를 활용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현실을 감안할 때, 생산성과 효율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무농약 환경농법 보다는 반딧불이를 척도로 한 저농약농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 생산량 위주의 농법보다는 생산품의 질적 차별화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딧불이 지역 = 청정 농산물'의 등식 성립으로 신뢰와 홍보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반딧불이 지역의 농산물에 반딧불이를 브랜드화 함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구축과 가격 차별화에 상당히 효과적이라 예상된다.

결론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환경은 역시 인간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 자연환경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딧불이의 서식은 청정 환경을 상징하기에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반딧불이의 서식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지역민의 친환경적 생활양식과 지자체의 친환경적 개발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최근 많은 사람들과 지자체 등 단체에서 반딧불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딧불이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표면적으로는 생태계 내에서 이탈되어 있는 생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도 생태학적 조건이란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여 지금의 위기상황을 만들었다면 청정환경을 대변하는 반딧불이를 매개로 하여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본래의 자연환경으로 되돌려 놓는 것 또한 인간의 몫이며, 이런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